

**외모 스트레스가 아동과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
성역할 정체감 및 우울감을 매개 변인으로***

**The Effects of Appearance Stress on Children and Adolescents' Self-Esteem:
Mediating Variables of Sex-Role Identity and Depression**

성신여자대학교 복지학과
전임강사 조윤주

Department of Welfare, Sungshin Women's University
Full time lecturer : Yoon Joo Cho

◀ 목 차 ▶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II. 선행 연구 고찰 III. 연구 방법	IV. 연구 결과 및 해석 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plore self-esteem influencing variables such as appearance stress, sex-role identity, and depression, in order to assess self-esteem standard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It also investigated mediating effects of sex-role identity and depression on self-esteem.

The study subjects were 2,511 elementary students and 2,958 middle school students, selected using the Korea Adolescence Panel Data. The data collected from interviews were subjected to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t test, Pearson's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ly, appearance stress and depression of female students were higher than those of male students. However, sex-role identity of male students was higher than those of female students. Difference in self-esteem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between male and female students ($P > 0.05$). Secondly, appearance stress was positively correlated to sex-role identity and depression, but negatively correlated to self-esteem. Thirdly, sex-role identity and depression had a mediating affect on self-esteem. Finally, variables affecting self-esteem of children and adolescents were appearance stress, men-role identity, and depression. In addition to these variables, women-role identity was a major factor for female students.

주제어(Key Words) : 외모 스트레스(appearance stress), 성역할 정체감(sex-role identity), 우울감(depression), 자아 존중감(self-esteem)

Corresponding Author : Yoon Joo Cho, Department of Welfare, Sungshin Women's University, 249-1, Seongbuk-gu, Seoul, 136-742, Korea
Tel: +82-2-920-7620 Fax: +82-2-920-2098 E-mail: bijucho@sungshin.ac.kr

* 이 논문은 2009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Sungshin Women's University Research Grant of 2009).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외모에 대한 기준과 평가는 시대나 문화, 가치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외모 지상주의는 현대에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공통된 사회 현상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과도한 관심은 더 이상 여성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남성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 몇 년전부터 자주 회자되는 ‘꽃미남’이나 ‘몸짱’이라는 신조어는 이러한 사회상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용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멋진 외모와 몸매 가꾸기에 대한 신드롬은 성별에 상관없이 팽배해지고 있으며 연령 역시 하향화되는 경향이 있다. 아동기부터 일상생활에서 무의식적으로 접하게 되는 대중 매체의 프로그램, 컴퓨터 게임의 등장 인물, 바비인형과 같은 놀이감 등을 통해 이전보다 훨씬 어린 연령부터 개인의 신체상(body image) 형성에 영향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면 대중 매체의 출연자나 게임 캐릭터가 여성적인 특징을 과도하게 강조한다든지 혹은 지나치게 마른 팔동신의 체형을 가진 인형 등에 개인이 지속적으로 노출됨으로써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은연중에 자신의 가치 정립에 내면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즉, 대중 매체는 여성 신체의 대상화(objectification)를 강조하며 여성의 가치는 외모에 따라 결정된다는 내용을 전달하여 외모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추종하도록 강화시킨다는 것이다(Moradi, Dirks, & Matteson, 2005). 따라서 관련 연구들은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이 다수인데 일례로 한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여아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좀 더 마른 몸매를 갖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ombush, et al., 1984).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보건복지가족부(2008)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신장이 서양의 표준 치수에 근접해 가고 있으며, 특히 여학생들의 체형이 전반적으로 10년 전에 비해 호리호리한 체형으로 변화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외모를 중시하는 요즘의 세태를 반영하여 청소년의 상당수가 균형 잡힌 외모를 얻기 위해 체중 조절을 시도하며, 운동과 식사량 감소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처럼 여성의 ‘마름에 대한 이상화(thin ideal)’와 함께 남성은 ‘건장함(muscularity)’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남성의 근육질 몸매 만들기에 대한 집착과 과도한 운동 행태가 이러한 추세를 입증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외모 중시라는 동일한 주제하에서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기준은 사회문화적 영향의 차이에 따라 성차 존재할 가능성을 유추하게 한다(Cohance & Pope, 2001). 청소년기는 발달 과정상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전환하는 과도기로서 이차 성징 등의 신체적인 변화가 크므로 자신의 외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자신의 성에 적합한 성역할을 지

향하게 된다. 이 시기에 근접할수록 자신과 동성의 성역할을 좀 더 동일시하여, 여성의 경우 신체적인 매력은 여성성과 연관된 기준으로 수용하며(Stice, Hayward, Cameron, Kilen, & Tayler, 2000), 남성 역시 동성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다(Field, et al., 2001).

이처럼 신체적인 변화에 따른 성역할 습득과 더불어 이것이 사춘기 남녀학생에게 미치는 결과가 다른 것으로 보고된다. 이는 이차 성징을 경험하는 시기상의 차이와 이를 받아들이는 태도의 차이로 인해 성차가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사춘기로 접어드는 시기가 여학생에게 더욱 스트레스적이어서 일반적으로 청소년기에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우울감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Compian, Gowen, & Hayward, 2004; Petersen, Sarigiani, & Kennedy, 1991; Wong & Whitaker, 1993).

또한 이 연령대는 ‘상상의 관중’과 같이 타인의 평가에 민감한 시기이므로(Elkind, 1981), 외부 환경의 영향에 많이 의존하여 자신의 자아 개념을 형성하게 된다. 이 시기의 주요 발달 과업 중의 하나인 자아 개념 정립에는 자아 존중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현저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다(Rosenberg, 1979). 이에 자아 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을 파악하려는 선행 연구들 중 신체적인 측면에서는 신체상이,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우울감이 주로 언급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 후기부터 청소년기가 개인의 자아 존중감을 정립하는 결정적인 시기이며 외모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 외모 스트레스와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성역할 정체감 및 우울감을 매개로 하여 이러한 변인들이 아동과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상의 목적을 위해 상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 문제 1> 외모 스트레스, 성역할 정체감, 우울감과 자아 존중감에 대한 성차와 연령 차이는 어떠한가?
- <연구 문제 2> 외모 스트레스, 성역할 정체감 및 우울감과 자아 존중감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 문제 3> 성역할 정체감과 우울감이 외모 스트레스와 자아 존중감을 매개하는가?
- <연구 문제 4> 외모 스트레스, 성역할 정체감과 우울감이 아동과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선행 연구 고찰

1. 아동과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이행되어 가는 시기 중 이들이 달

성해야 하는 발달 과업으로 대표적인 것이 자아 개념이며 이 중에서도 자아 존중감의 발달이 중요하다. 자아 존중감은 '자신의 능력이나 중요성 등 자신의 가치를 평가, 판단하는 것으로 행동과 적응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한상미, 김경미, 2006). 이는 15세경부터 현저히 발달하기 시작하므로 청소년기가 매우 중요하며, 이 때 사회적 환경의 주요 인물로부터의 인정과 수용, 또는 거부와 멸시가 이들의 자아 존중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Rosenberg, 1979).

따라서 관련 연구들은 부모나 또래와의 관계 등을 살펴본 연구가 다수이나, 학령기 아동의 자아 존중감은 학업적, 사회적, 신체적 자아 존중감의 구조를 가진다는 Harter(1990)의 견해를 참고하여 그동안 간과되어 온 신체적 자아 존중감 위주로 접근하고자 신체상을 독립 변인으로 연구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과 개인의 심리적 요인간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파악하기 위해 성역할 정체감과 우울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청소년기는 이차 성징의 발현에 따라 자신의 외모에 적합한 성역할 습득이라는 사회화 과정이 요구되며, 성숙에 대한 상이한 반응으로 인해 이것이 이들의 우울감과 자아 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요약되기 때문이다.

연구 대상면에서도 기존의 연구들은 신체적 매력에 여성에게만 중요한 것으로 간주, 대상을 여학생으로만 한정하여 신체상이나 외모 스트레스를 주제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김정민, 박경미, 2008; 현명호, 유제민, 이수현, 2002). 또한 아동기의 남녀 모두를 살펴본 연구들도 보고되기는 하나 성별 집단을 구분하지 않는 등(도금혜, 2008), 남녀 모두를 연구 대상으로 하며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기를 동시에 고려하여 종단적으로 시도한 연구는 흔하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외모 스트레스와 성역할 정체감, 우울감과 자아 존중감의 성차와 연령차가 어떠한가, 이 변인들이 아동과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외모 스트레스

1) 외모 스트레스와 자아 존중감

선행 연구들은 아동기부터 청소년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주로 형성되는 자아 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왔다. 그 중 한 변인으로 포함되는 것이 신체상(body image)으로 이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내적인 심상과 이에 대한 전반적인 정서적 태도'로 정의된다(Faubel, 1988).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 성장과 이차 성징의 발달로 인해 신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이러한 변화에 따라 새로운 신체상을 구성해야 한다. 더욱이 이

시기의 신체상은 자아 개념의 일부이므로 자신의 신체상에 불만족할 경우 자기 가치감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며(Pierce & Wardle, 1997), 결과적으로 본인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신체상과 실제와의 괴리감 때문에 심리적인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대 사회에서의 비만은 부정적인 평가와 사회적 배척으로 연결되기 쉽다(Rodin, Price, Sanchez, & McElligot, 1989). 또한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 한상숙과 김경미(2006)의 연구에서도 신체상과 자아 존중감에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으며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은 성차를 알아보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2) 외모 스트레스와 성역할 정체감

신체상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생물학적, 대인관계적,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요약된다(Presnell, Bearman, & Stice, 2003). 생물학적 요인의 경우 사춘기의 남녀가 경험하는 신체적인 변화를 수용하는데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남자는 이러한 변화에 만족하고 남성적인 특징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Nolen-Hoeksema & Girgus, 1994). 반면 여자에게는 신체적인 변화가 초경에 대한 불편함과 성적 대상으로 취급되는 등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된다. 한편 대인관계 요인은 앞서 언급한 여러 연구들에서 또래의 평가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Shroff & Thompson, 2006).

이 중에서도 신체상에 가장 많이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사회문화적 요인은 성역할 정체감이 해당될 수 있으며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러한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선행 연구들은 드물어 본 연구는 이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외모 스트레스와 우울감

신체상의 불만족은 우울감과 같은 정서적 디스트레스와 연관되어 이 시기 동안 이들은 급격한 우울 징후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므로 우울감은 정신건강상의 주된 문제로 간주되어 왔다. Compian *et al.*(2004)은 10~13세의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신체상의 만족도가 낮을수록 우울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관련 연구들에 따르면 자신의 신체에 불만족할수록 대개 우울 성향이 높을 뿐 아니라 자아 존중감이 낮았다(박경애, 2002; 박지현, 최태산, 2008; Tiggemann, 1996).

4) 외모 스트레스에 대한 성차와 연령차

신체상과 자아 존중감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Polce-

Lynch, Myers, Kilmartin, Forssmann-Falck과 Kliever(1998)는 청소년 초기의 부정적인 신체 평가가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성차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즉, 남아보다 여아에게서 더 많은 관련성이 있고 여아가 신체상을 보다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다수의 선행 연구들은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들로, Shroff와 Thompson(2006)은 사춘기 여학생에게는 또래의 평가가 중요하여 이들이 외모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화시키고 결국 신체상에 대한 불만족이 자신의 자아 존중감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였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여학생을 대상으로 또래 관계의 질이 신체 불만족과 연관되어 다이어트나 섭식 장애와 관련됨을 보고한 바 있다(Schutz & Paxton, 2007).

국내의 연구 경향도 외국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 현명호 외(2002)는 여중생의 신체상 불만족은 비만과 우울을 매개로 함을 발견하였고,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외모에 대한 대중 매체나 사회문화적 태도가 이들의 섭식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김정민, 박경미, 2008; 김정민, 한근희, 2008). 여대생의 경우 타인의 평가에 민감한 내현적 자기애가 강하고,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를 두려워 할 때, 그리고 신체상의 만족도가 떨어질 때 마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신동주, 정남운, 2007). 그러나 최근에는 신체상에 대한 관심이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어서 남성에게도 확장되고 있다. 단지 여성은 마름에 대한 욕구가 지배적이라면 남성은 근육질의 외형을 희망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에 남녀를 함께 살펴본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McCreary와 Sasse(2000)는 여학생은 마름에 대한 이상화를 내면화하나 남학생은 건장함(muscularity)에 대한 욕구가 매우 강하여 그렇지 않을 경우 자아 존중감이 낮아 체중을 늘리는 전략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또한 Presnell et al.(2003)은 여학생은 체중이 늘어날수록 신체에 불만족했으나, 남학생은 평균 체중보다 많거나 적을 때 신체 불만족 점수가 높았다. 초등학교 남녀 5, 6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도금혜(2008)의 연구에서는 자아 존중감이 아동의 신체상에 영향을 주며, 섭식 태도가 신체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는 남아와 여아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분석함으로써 선행 연구들에서 지적된 성차를 알아보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3. 성역할 정체감

1) 성역할 정체감과 자아 존중감

성역할 정체감(sex-role identity)은 '자신의 성별을 인식

하고 사회에서 정의한 성 역할을 습득함으로써 생긴 남성 혹은 여성으로서의 통합감'이다(김애순, 2005). 즉, 성에 따라 개인의 특질이 다르므로 예를 들어 공격성, 주장성, 지배와 통제 등은 남성성 성역할로, 관계지향성, 의존성, 의사소통과 같은 특성은 여성성 성역할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성역할 고정관념은 일차적으로는 가족, 그리고 또래 관계, 학교 환경, 나아가 대중 매체와 같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 개인에게 내면화되고 전수된다(Crespi, 2007, 김소정, 재인용).

이에 대한 왕강희(2008)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성역할 정체감은 남아와 여아 모두 양성성 정체감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미분화 정체감의 순이었다. 그리고 남녀 모두 자아 존중감이 높은 집단에서 양성성 정체감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남성성 정체감이 뒤이었다. 다시 말하면 성에 관계없이 자아 존중감이 높은 아동은 양성성 정체감을, 자아 존중감이 낮은 아동은 미분화된 정체감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안순(2004)은 초등학생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남녀별 차이가 있어 남학생은 미분화, 남성성, 양성성, 여성성의 순으로, 여학생은 양성성, 여성성, 미분화, 남성성의 순임을 보고하였다. 또한 이들의 학교 생활 적응은 남녀 모두 양성성 유형의 경우 가장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성역할 정체감과 우울감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남성적인 고정관념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용어인 도구적인 측면(instrumentality)은 심리적인 안녕감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으며, 이러한 성향이 많은 개인이 우울감이나 열등감이 적고, 자아 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Waelde, Silvern, & Hodges, 1994; Whitley & Gridley, 1993). 이외에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도 나타났다(Marcotte, Alain, & Gosselin, 1999). 따라서 남성적인 성역할 특성이 청소년기의 우울 징후를 감소시키는 한 요인으로 제안될 수 있다.

반면 여성성의 고정관념인 표현적인 측면(expressivity)이 우울감과 관련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결과가 일관되지 않지만 대체로 우울감과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 Wong과 Whitaker(1993)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은 성역할과 불안간 관계가 없었으나 여학생은 유의한 관계가 있어 여성성의 특징인 표현적 측면이 많으면 우울감이 심하였다. 이는 양성적인 특징을 가진 남학생이 그렇지 않은 남학생보다 적응력이 뛰어나지만 낮은 남성성과 낮은 여성성의 조합을 가진 여학생은 심리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Hart와 Thompson(1996)도 도구적 측면 등 성역할과 관련된 변인들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도구적 성향이

적고 여성적 특징이 강하면 우울감이 증가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3) 성역할 정체감에 대한 성차와 연령차

성역할 정체감의 차이는 '성 강화 가설(gender intensification hypothesis)'을 이용하여 설명될 수 있다. 이 가설에 따르면 신체상의 변화로 인해 청소년 자신의 성(gender)에 관심을 갖게 되나, 이들은 아직 성역할 정체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정형화된 성역할에 의존하기 쉽다고 가정한다(Hill & Lynch, 1983). 이와 같은 주장에 입각하여 Alfieri, Ruble과 Higgins(1996)는 남아가 남성적인 고정관념이 견고해지는 것처럼 여아 역시 여성적인 고정관념을 고수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이견도 있어 11세에서 13세경 사이에 사춘기가 되면서 남성성이나 여성성, 성역할에 대한 태도가 강화될 것이라는 가설에 대해 남성성과 성역할 태도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였으나 여성성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성역할 가설이 지지되기는 했지만 사춘기와 반드시 연관되지는 않음을 주장한 연구들도 있다(Galambos, Almeida, & Petersen, 1990; La-pointe & Marcotte, 2000).

4. 우울감

1) 우울감과 자아 존중감

우울감(depression)은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특히 사춘기를 전후하여 급격히 증가한다(정옥분, 2008). 일레로 Jaenicke, *et al.*(1987)의 연구에 따르면 우울 증상을 보이는 아동은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 비하의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으로 위축되고 집중력 부족으로 학업 성취가 떨어질 뿐 아니라 심리적 장애나 신체적 증상 등을 호소하기도 하였다(Wicks-Nelson & Israel, 2000).

2) 우울감에 대한 성차와 연령차

부정적인 신체상과 우울감이 관련되며(Schutz & Paxton, 2007), 이러한 연관성에 대해 성차가 존재하는 주된 이유로 이차 성징을 경험하는 연령이 남아보다 여아가 빠른 것을 언급하기도 한다. Petersen *et al.*(1991)은 여학생의 경우 이차 성징이 최고조로 나타나는 시기와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시기가 맞물리면서 남아보다 더 많은 우울감을 경험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스트레스가 많은 사건들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청소년기의 여학생이 대개 더 많은 우울 징후를 보인다.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한 Nolen-Hoeksema와 Girgus(1994)는 연구 대상 중 우울 증상이 심한 경우가 5~12%를 상회하였으며 종단 연구 결과 우울증이 심한 아들은 5년 후에도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이처럼 우울감은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갈수록 현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여아는 남아보다 우울 증상의 비율이 청소년기 이후 매우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된다(Cantwell, 1990). 이처럼 우울감에 대한 지각에서도 성차가 존재하여 대개 남학생의 20~35%, 여학생의 25~40%가 우울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etersen *et al.*, 1991).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의 연구 결과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심희옥(1997)의 연구에 따르면 학년이나 스트레스 정도, 개인적·환경적 자원 등을 통제한 후에도 여아가 남아보다 더 심한 우울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는데 이 자료는 종단적 연구 모형으로서 동일한 표본을 세 번 이상 서로 다른 시점에서 반복 조사하는 종다점망적 패널 설계(multiple point prospective panel design)를 설계의 기본 원칙으로 한 것이다. 이러한 원칙하에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2학년생들 중 표본으로 선출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은 층화 다단계 집락 표집 방법을 통해 전국 규모의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개별 면접 조사 방법을 이용하였다. 선정된 연구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 2,511명(남: 1,329명, 여: 1,182명)과 중학교 2학년 2,958명(남: 1,506명, 여: 1,452명)이었으며, 조사 기간은 2007년 10월부터 12월까지였다.

2. 측정 도구

주요 변인의 측정은 먼저 외모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몸무게가 많거나 적어서 스트레스 받는다' 등 4문항을 이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외모 스트레스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Cronbach α 로 초등학생 집단은 .810, 중학생 집단은 .797이었다. 한편 성역할 정체감은 여성성 정체감과 남성성 정체감으로 세분화되는데 여성성 정체감은 '여자는 사회적 성공보다 좋은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등 3문항, 남성성 정체감은 '남자에게는 사회적 성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등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역

시 5점 척도이며 점수의 합이 클수록 여성성 정체감과 남성성 정체감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내적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여성성 정체감의 경우 .739(초 4), .774(중 2), 남성성 정체감의 경우 .771(초 4), .791(중 2)이었다.

다음으로 우울감에 대한 6문항은 '나는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는 편이다', '나는 모든 일에 걱정이 많은 편이다' 등의 내용이다. 문항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부터 '매우 그렇다(5점) 까지 5점 척도 중 응답하게 하였으며,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심한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의 Cronbach α 는 .840(초 4), .836(중 2)이었다. 끝으로 자아 존중감에 관해서는 '나는 나 자신이 좋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 자신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등 6문항으로 조사하였다. 이는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내적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767(초 4), .763(중 2)이었다.

3. 분석 방법

자료 분석은 SPSS WIN(1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 통계를 산출하였고, 외모 스트레스와 성역할 정체감, 우울감 및 자아 존중감에 대한 성차와 연령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변인간의 관계는 Pearson의 직물 상관 계수를 구하였고, 외모 스트레스, 성역할 정체감과 우울감이 아동과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성역할 정체감 및 우울감의 매개 효과는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1. 외모 스트레스, 성역할 정체감, 우울감과 자아 존중감에 대한 성차와 연령 차이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 문제인 외모 스트레스와 성역할 정체감, 우울감 및 자아 존중감에 대한 성차와 연령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한 결과는 아래 <표 1>과 같다. 외모 스트레스에 대해 성별로는 여학생 집단이 남학생 집단보다 심하였는데, 초등학교 4학년 집단($M = 9.93$)과 중학교 2학년 집단($M = 10.63$) 두 연령대 모두 여학생이 외모 스트레스를 더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고학년이 저학년에 비해 외모 스트레스가 더 많다는 이영미(2004)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외모에 대한 사회적 기준과 압력을 더 많이 받아 결과적으로 서구 여성의 신체 조건을 동일시하고 이에 부합하려는 욕구가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초등학교 4학년 집단보다 중학교 2학년 집단의 외모 스트레스가 더 컸던 것은 이차 성징이 나타나는 사춘기에 접어들 때 외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이에 대한 만족도가 외모 스트레스의 정도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성역할 정체감의 성차와 연령 차이에 대한 결과는 남학생 집단이 여학생 집단보다 여성성 정체감과 남성성 정체감 점수가 높았으며 이와 같은 경향은 초등학교생과 중학생 두 집단 모두 동일하였다. 즉, 초등학교 4학년 남학생의 여성성 정체감은 $M = 7.67(SD = 2.59)$, 남성성 정체감은 $M = 9.76(SD = 2.66)$ 으로, 여학생의 점수(여성성 정체감: $M = 6.06$, 남성성 정체감: $M = 9.12$)보다 높아 남학생 집단이 남

<표 1> 외모 스트레스와 성역할 정체감, 우울감 및 자아 존중감에 대한 성차와 연령 차이

변인	남 ($n = 1329^a/1506^b$) <i>M(SD)</i>	여 ($n = 1182^a/1452^b$) <i>M(SD)</i>	전체 ($N = 2511^a/2958^b$) <i>M(SD)</i>	<i>t</i>
외모 스트레스				
초 4	8.25(3.46)	9.93(3.80)	9.04(3.72)	-11.649***
중 2	9.65(3.44)	10.63(3.51)	10.13(3.51)	-7.697***
성역할 정체감				
초 4 여성성	7.67(2.59)	6.06(2.36)	6.91(2.61)	16.176***
초 4 남성성	9.76(2.66)	9.12(2.94)	9.46(2.81)	5.763***
중 2 여성성	7.67(2.36)	6.17(2.18)	6.93(2.39)	17.967***
중 2 남성성	10.70(2.41)	10.12(2.53)	10.41(2.49)	6.392***
우울감				
초 4	13.11(4.71)	14.34(5.09)	13.69(4.93)	-6.305***
중 2	15.13(4.58)	16.22(4.63)	15.66(4.64)	-6.276***
자아 존중감				
초 4	20.66(3.95)	20.64(4.02)	20.64(3.98)	.148
중 2	20.53(3.70)	20.54(3.69)	20.53(3.69)	-.088

주. ^a: 초등학교생의 사례수, ^b: 중학생의 사례수
*** $p < .001$.

성성 정체감 뿐 아니라 여성성 정체감도 강하였다. 다시 말하면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중학교 2학년 집단도 초등학교 4학년 집단과 마찬가지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여성성 정체감($M = 7.67$ 점)과 남성성 정체감($M = 10.70$) 모두 점수가 높았다. 그러나 남학생 집단내에서 여성성 정체감은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나, 남성성 정체감은 1점 가량 상승하여 연령이 증가하면서 남성성 정체감이 견고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우울감은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2학년 집단의 남학생이 각각 13.11점, 15.13점으로 같은 연령대의 여학생(초 4: $M = 14.34$, 중 2: $M = 16.22$)보다 낮아 여학생들이 더 많은 우울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아 존중감의 경우 초등학교 4학년 남학생은 20.66점, 여학생은 20.64점으로 그 차이가 미미하였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았다. 중학교 2학년 집단 역시 남녀 각각 20.53점, 20.54점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성차는 존재하지 않았고 연령상으로는 고학년이 되면 약간의 하락세를 보였다.

2. 외모 스트레스와 성역할 정체감 및 우울감과 자아 존중감의 관계

두 번째 연구 문제로서 외모 스트레스와 성역할 정체감 및 우울감, 그리고 자아 존중감과의 관계는 Pearson의 적률 상관 계수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표 2〉). 분석 결과 남학생(초 4: $r = .138^{**}/r = .056^*$, 중 2: $r = .125^{**}/r = .074^{**}$)과 여학생(초 4: $r = .031/r = .122^{**}$, 중 2: $r = .156^{**}/r = .168^{**}$) 모두 외모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여성적 성역할과 남성적 성역할의 정체감도 강했다. 또한 외모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우울감도 높아 남학생은 $r = .406^{**}$ (초 4), $r = .371^{**}$ (중 2), 여학생은 $r = .390^{**}$ (초 4), $r = .453^{**}$ (중 2)이었다. 외모 스트레스와 자아 존중감과의 관계는 남학생(초 4: $r = -.301^{***}$, 중 2: $r = -.296^{***}$)과 여학생(초 4: $r = -.293^{***}$, 중 2: $r = -.377^{***}$) 모두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외모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이들의 자아 존중감은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외모 스트레스와 우울감, 자아 존중감과의 부적 관련성을 언급한 선행 연구들(박경애, 2002; 박지현, 최태산, 2008; Compian *et al.*, 2004; Marcotte *et al.*, 1999; Tiggemann, 1996)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성역할 정체감 중 남성성 정체감과는 정적 상관을 보인 이전의 연구들과도 부분적으로 일치되었다(Hart & Thompson, 1996; Wong & Whitaker, 1993).

3. 성역할 정체감과 우울감의 매개 효과 및 아동과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을 설명하는 변인

끝으로 성역할 정체감과 우울감의 매개 효과와 아동과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고자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앞서 독립 변인간의 다중공선성을 점검하였는데 상관 계수가 그다지 높지 않아 분석에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Durbin-Watson 계수는 초등학교 4학년 남학생 집단은 2.024,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 집단은 2.001이었으며, 중학교 2학년 남학생 집단은 1.938, 중학교 2학년 여학생 집단은 2.099로 2에 근접하였다. 그리고 Eigen 값은 집단별로 각각 1.922, 1.934, 1.942, 1.950으로 15이하여서 회귀 분석에 적합한 모형이었다.

성역할 정체감과 우울감이 외모 스트레스와 자아 존중감을 매개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변인들의 상관 관계를 살펴 보았는데 이는 매개 역할의 기본적인 조건으로 각 변인들간의 유의미한 상관 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는 Baron과 Kenny(1986)의 제안을 기초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앞서 두 번째 연구 문제에서 주요 변인간의 관계성을 검증하였으며, 이 변인들을 순차적으로 투입하였다. 그리고 선행 연구들에서 성에 따른 차이가 보고되므로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남학생을 대상으로 한 결과는 아래 〈표 3〉과 〈표 5〉와 같으며, 여학생의 결과는 〈표 4〉와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2〉 외모 스트레스와 성역할 정체감 및 우울감, 자아 존중감과의 관계

변인	외모 스트레스		
	남 ($n = 1329^a/1506^b$) r	여 ($n = 1182^a/1452^b$) r	전체 ($N = 2511^a/2958^b$) r
성역할 정체감			
여성성	.138** / .125**	.031 / .156**	.011 / .087**
남성성	.056* / .074**	.122** / .168**	.061** / .103**
우울감	.406** / .371**	.390** / .453**	.412** / .421**
자아 존중감	-.301*** / -.296***	-.293*** / -.377***	-.290*** / -.332***

주. a: 초등학교생의 사례수, b: 중학생의 사례수
* $p < .05$. ** $p < .01$. *** $p < .001$.

회귀 분석 결과, 초등학교 남학생의 자아 존중감에 대한 외모 스트레스 변인의 설명력은 9%였는데($p < .001$), 외모 스트레스($\beta = -.301, p < .001$)는 이들의 자아 존중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외모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초등학교 남학생의 자아 존중감이 높았다. 제 2단계에서 성역할 정체감 변인이 첨가됨으로써 1%의 변량이 추가로 설명되었으며($p < .001$), 이 변인은 외모 스트레스를 매개하여 전체적으로는 10%의 변량이 설명되었다. 외모 스트레스($\beta = -.300, p < .001$)는 여전히 유의한 변인으로 남아 있었으며, 성역할 정체감 중 남성성 정체감($\beta = .104, p < .001$)은 자아 존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모 스트레스가 적으면, 남성성 정체감이 강하고, 초등학교 남학생의 자아 존중감도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3〉 초등학교 남학생의 자아 존중감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 결과

(N = 1329)

변인	1단계 β	2단계 β	3단계 β
외모 스트레스	-.301***	-.300***	-.159***
성역할 정체감			
여성성		-.049	-.023
남성성		.104***	.089**
우울감			-.356***
ΔR^2	.091	.009	.105
R^2	.091	.100	.205
F	132.427***	48.859***	85.288***

** $p < .01$, *** $p < .001$.

마지막 제 3단계에서는 우울감 변인이 첨가됨으로써 11%의 변량이 추가로 설명되었으며($p < .001$),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자아 존중감 전체 변량의 21%를 설명하였다. 외모 스트레스($\beta = -.159, p < .001$)와 남성성 정체감($\beta = .089, p < .01$)은 계속적으로 유의한 변인으로 남아 있었으며, 우울감($\beta = -.356, p < .001$)은 초등학교 남학생의 자아 존중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외모 스트레스가 적고, 남성성 정체감이 강할 때, 우울감이 적으며, 결과적으로 이들의 자아 존중감도 높았다(〈표 3〉).

초등학교 여학생 집단의 경우 투입한 순서는 초등학교 남학생 집단과 동일하며 최종적인 변인들의 설명력은 총 25%였다. 외모 스트레스($\beta = -.133, p < .001$)와 여성성 정체감($\beta = -.066, p < .05$), 남성성 정체감($\beta = .090, p < .01$), 그리고 우울감($\beta = -.435, p < .001$)이 초등학교 여학생의 자아 존중감에 영향을 미쳐, 외모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여성성 정체감이 약할수록, 남성성 정체감이 강할수록, 또한 우울감이 적을수록, 이들의 자아 존중감이 높았다. 이 과정에서 남성성 정체감($\beta = .088, p < .01$)은 외모 스트레스에 대해 매개

역할을 하여, 외모 스트레스가 적을 때, 남성적인 정체감도 강하며, 우울감 변인이 추가될 경우, 이전에 나타나지 않았던 여성성 정체감($\beta = -.066, p < .05$)의 매개 효과가 존재하여 우울감($\beta = -.435, p < .001$) 역시 성역할 정체감과 자아 존중감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언하면 외모 스트레스가 적을 때, 여성성 정체감은 감소하고, 남성성 정체감은 증가하며, 이에 따라 우울감이 감소하여 초등학교 여학생의 자아 존중감이 높아지는 것이다(〈표 4〉).

〈표 4〉 초등학교 여학생의 자아 존중감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 결과

(N = 1182)

변인	1단계 β	2단계 β	3단계 β
외모 스트레스	-.293***	-.302***	-.133***
성역할 정체감			
여성성		-.056	-.066*
남성성		.088**	.090**
우울감			-.435***
ΔR^2	.085***	.008**	.160***
R^2	.085***	.093	.254
F	110.881***	40.477***	99.946***

* $p < .05$, ** $p < .01$, *** $p < .001$.

중학교 남녀학생의 자아 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총 설명 변량은 남학생 집단 20%, 여학생 집단 28%였으며, 결과는 아래 〈표 5〉와 〈표 6〉에 제시하였다. 남학생의 자아 존중감을 설명하는 변인은 외모 스트레스($\beta = -.177$ ***)와 남성성 정체감($\beta = .121$ ***), 우울감($\beta = -.328$ ***)으로 외모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남성성 정체감이 강할수록, 그리고 우울감이 적을수록, 중학교 남학생의 자아 존중감이 높았다. 이에 대한 매개 효과는 여성성 정체감이 적고, 남성성 정체감이 많으면, 외모 스트레스와 자아 존중감은 부적인 관계를 보였으나, 우울감 변인을 투입했을 때 여성성 정체감의 효과는 사라져 남학생에게는 성역할 정체감 중 남성성 정체감만

〈표 5〉 중학교 남학생의 자아 존중감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 결과

(N = 1506)

변인	1단계 β	2단계 β	3단계 β
외모 스트레스	-.296***	-.294***	-.177***
성역할 정체감			
여성성		-.087**	-.047
남성성		.119***	.121***
우울감			-.328***
ΔR^2	.088	.016	.091
R^2	.088	.104	.195
F	144.473***	58.082***	91.046***

** $p < .01$, *** $p < .001$.

이 매개 역할을 하였다. 즉, 외모 스트레스가 적은 것은 남성성 정체감이 강할 때이며, 이러한 경우 우울감이 적어 결과적으로 자아 존중감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표 5)).

한편 여학생의 자아 존중감은 외모 스트레스($\beta = -.193^{***}$), 여성성 정체감($\beta = -.074^{**}$), 남성성 정체감($\beta = .076^{**}$)과 우울감($\beta = -.407^{***}$)에 의해 설명되어, 외모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여성성 정체감이 약할수록, 남성성 정체감이 강할수록, 그리고 우울감이 적을수록, 이들의 자아 존중감이 높았다. 성역할 정체감의 매개 효과로는 여성성 정체감만이 외모 스트레스와 자아 존중감을 매개하여 외모 스트레스가 적으면, 여성성 정체감도 적어, 자아 존중감이 높아지지만, 우울감 변인을 추가한 결과 남성성 정체감도 매개 변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모 스트레스와 여성성 정체감은 자아 존중감에 부정적이나 남성성 정체감이 강하면 우울감이 감소하여 자아 존중감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인다(표 6)).

〈표 6〉 중학교 여학생의 자아 존중감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 결과

(N = 1452)

변인	1단계	2단계	3단계
	β	β	β
외모 스트레스	-.377***	-.365***	-.193***
성역할 정체감			
여성성		-.123***	-.074**
남성성		.044	.076**
우울감			-.407***
ΔR^2	.142***	.014***	.128***
R^2	.142	.156	.284
F	239.604***	58.082***	143.141***

** $p < .01$. *** $p < .001$.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외모 스트레스가 아동 후기와 청소년기 학생들의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성역할 정체감과 우울감을 매개 변인으로 하여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외모 스트레스는 여학생 집단에서 더 심하게 나타나 십대 여학생 집단이 남학생 집단보다 신체상을 더 부정적으로 지각한 선행 연구들을 지지하였다(박경애, 2002; 이영미, 2004; Dombush, et al., 1984; Polce-Lynch et al., 1998). 이는 최근 외모에 대한 관심이 성별을 초월하여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여성에게 보다 강함을 보여주는 결과라 생각된다. 그리고 연령면에 있어 초등학교 4학년 집단이 중학교 2학년 집단보다 외모 스트레스가 강하여, 초등학교 3학년생보다 6학년생이 스트레스를 많이 느꼈던 이영미(2004)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이와 같은 경향은 연령이 높아지면서 형식적 사고 등 인지 능력이 향상되어 사회문화적으로 규정한 이상적인 평가 기준이 개인의 사고에 보다 영향력있게 작용하는 시기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차 성징이 남아보다 여아가 2, 3학년 정도 먼저 나타날 뿐 아니라 신체적 성숙은 여아의 경우 곧 지방 등 체중의 증가와 연결되는 특수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Attie & Brooks-Gunn, 1989). Cawley(2001)의 연구에 따르면 체중이 10파운드 증가하면 여아는 10%, 남아는 7.3% 가량 이성 교제의 가능성이 하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여학생은 여성의 체형에 근접하게 변화되는 과정에서 대중 매체나 또래와의 비교를 통해, '마름에 대한 이상화'와 같이 자신에게 내면화된 이상적인 미의 기준과 실제의 차이가 클 경우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성역할 정체감의 경우 남학생 집단의 성역할 정체감 점수가 여성성, 남성성 모두 높았으며, 이 중에서도 여성성 점수보다 남성성 점수가 높아 남성성과 성역할 태도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한 Galambos et al.(1990)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였다. 즉, 남학생들이 여학생보다 성역할 정체감에 대한 고정관념이 강함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는데 조정문(1993)의 연구에서 남성은 여성성 고정관념으로 인해 여성을 차별하는 것에는 반대하지만 남성과 여성간 역할 구분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었던 것처럼 보수주의적인 관점을 옹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예전과 달리 여성의 남성적인 성향은 비교적 용인되는 사회적 분위기로 변모하고 있지만 반대의 경우 남성은 여전히 부정적인 반응을 경험하여 남학생은 전통적인 성역할을 고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결과는 강정구(1990)의 연구에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성역할 고정관념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서 더욱 감소한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한 것으로 보인다.

Maccoby(1998)에 따르면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의 전이 시 엄격히 분리되었던 성 고정관념이 재구조화된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 대상의 남학생은 고정관념이 강화되었던 반면 한편으로는 여학생의 남성성이 증가한 것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와 지위 향상 등으로 인해 기존의 성정형화된 이미지가 희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사회 관계와 경험에 노출되면서 성역할의 유연화를 초래한다는 Kulik(2005)의 설명이 위와 같은 결과를 뒷받침한다. 이처럼 동일한 사회문화적 변화를 경험한다고 해도 주로 여성만이 영향을 받아 의식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볼 때 그동안 기득권의 위치였던 남성이 사회 변화에 적응하고 수용하려는 의지가 적고 결과적으로 의식 변화의 지체 현상을 보인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우울감의 경우 초등학생과 중학생 두 연령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우울감 점수가 높았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여학생들의 우울 징후가 더 많았던 Petersen *et al.*(1991)이나 심희옥(1997)의 연구 결과와 동일하여 선행 연구들을 일관되게 지지하였다. 다시 말하면 여학생이 이차 성징을 경험하는 연령이 남학생에 비해 빠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들에게 긍정적인 자기 평가의 기회가 되기보다는 그 반대로 인식되는 비율이 훨씬 더 높고 이 때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시기와도 중첩되면서 여학생이 우울 징후를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변화는 자아 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도 연관되어 남녀 모두 외모 스트레스, 남성성 정체감, 우울감이 자아 존중감을 설명하는 변인이었고, 여학생 집단은 여기에 여성성 정체감도 포함되었다. 신체상이 긍정적인수록 자아 존중감이 높았던 도금혜(2008)의 연구나, 우울감이 적을수록 이들의 자아 존중감이 높았던 선행 연구(Petersen *et al.*, 1991)를 지지하는 결과였다. 여학생 집단에서만 여성성 정체감이 유의한 설명 변인이었던 것은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적 세태가 여성성의 매력을 강조하는 문화적 가치와 결부되어 자신의 신체상이 사회에서 통용되는 일정 기준에 부합하지 못 한다고 생각할 경우 여학생의 우울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이영미(2004)나 현명호 외(2002)의 연구와도 일관된 결과이며, de Zwann, *et al.*(1994)은 비만의 여자 청소년이 사회적 차별과 가족 또는 친구들의 무시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체중 증가에 대한 두려움, 비만으로 인한 자아 존중감의 결여, 왜곡된 인식 등으로 우울 증상을 초래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를 지지하여 외모 스트레스는 성역할과 우울감을 매개로 하여 자아 존중감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중 흥미로운 결과는 성역할 정체감으로 여성성 정체감은 부적인 영향을, 남성성 정체감은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남성성 정체감이 남학생 집단 뿐 아니라 여학생 집단에서도 긍정적이었던 것이다. 성역할 고정관념과 자아 존중감의 관계에 대한 모델 중 '남성성 성역할 모델'은 자아 존중감과 남성성 성역할 수준이 밀접한 관련이 있어 남녀 모두 남성성 성역할의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 존중감이 높다고 주장한다(최진아, 이숙, 1991). 남성성 성역할이 문제 해결 능력을 증진시킨다거나, 높은 자아 존중감을 형성하게 한다는 이전의 연구 결과들을 볼 때(Marcotte *et al.*, 1999; Waelde *et al.*, 1994; Whitley & Gridley, 1993), 여학생 집단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최근 '알파 걸' 등의 신조어처럼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성역할이 이들에게도 중요하고 양성적인 성역할에 대한 요구가 공존하는 과도기임을 보여주는 맥락이

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 문제에서 여학생이 외모 스트레스를 더 많이 지각하기는 하였으나 그 수준이 미약했던 것과 관련되는 결과일 수 있으며 여학생의 의식 변화가 남학생보다 더 진보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남학생의 의식 변화가 동반되지 않고 여학생에게만 양성적인 변화를 요구할 경우 성인 여성이 슈퍼우먼 콤플렉스에 시달리며 역할 과중을 경험하는 것과 같이 이들이 성장해서도 더 많은 부담감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남녀 모두 고정관념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남성성만이 우월한 측면이 아닌 여성성의 장점도 인정하여 남녀 모두 융통성있는 성역할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과 대중 매체의 홍보가 필요하다. 더불어 관련 정책 입안시 성인지적 관점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라는 이차 자료를 이용하여 외모 스트레스가 아동과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 자료는 전국 규모의 대표성있는 표집을 통해 각 연령대별로 이천명 이상의 사례 수를 확보한 장점이 있었던 반면 주요 변인의 측정과 활용에 있어 다소 제한점이 있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초등학생과 중학생 두 연령대를 종단적으로 접근하여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외모 스트레스의 실태가 어떠한가 또한 성역할 정체감 및 우울감과의 관련성을 알아보았으며, 이 변인들이 이들의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 참고문헌

- 강정구(1990). 성역할 형성 요인에 관한 연구: 부모의 성역할 양육 태도와 성역할 발달 과정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논문집**, 30, 9-40.
- 김소정(2008). 청소년 성역할 고정관념에 관한 연구 - 성 차이를 중심으로 -. **사회복지연구**, 36(봄), 129-149.
- 김애순(2005). **청년기 갈등과 자기 이해**. 서울: 시그마프레스.
- 김정민, 박경미(2008). 여고생의 섭식 신념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섭식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3), 65-77.
- 김정민, 한근희(2008). 대중 매체, 타인과의 외모 비교 및 신체 질량 지수가 여고생 및 여대생의 섭식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4), 73-83.
- 도금혜(2008). 아동의 자아 존중감, 섭식 태도 및 학교 생활 적응이 신체상에 미치는 영향. **초등교육연구**, 21(3), 111-125.

- 박경애(2002). 청소년의 신체상, 자존감 및 대인 불안의 관계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지현, 최태산(2008). 청소년의 신체 이미지가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1(1), 117-129.
- 보건복지가족부(2008). **2008 아동·청소년백서**.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신동주, 정남운(2007). 여대생 집단에서 내현적 자기에,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신체상 만족도가 마르고자 하는 욕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1), 77-94.
- 심희옥(1997). 아동 후기 초등학교 학생의 내적·외적 문제 행동인 우울 성향과 반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아동학회지**, 19(1), 39-52.
- 안 순(2004). 초등학교 학생의 학교 생활 적응에 대한 생물학적 성과 성역할 정체감의 상호작용 효과 -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왕강희(2008). 부모 양육 행동과 아동 자존감으로 본 아동의 성역할 정체감. 연세대학교 생활환경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영미(2004). 아동의 체형 지각과 신체상 지각에 따른 부정적 정서. **대한가정학회지**, 42(8), 133-145.
- 정옥분(2008). **아동 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조정문(1993). 청소년의 성 차이 의식과 청소년 비행. **여성학연구**, 4(1), 151-169.
- 최진아, 이 숙(1991). 성, SES에 따른 청소년의 성역할 특성 및 자아 개념. **가정과학연구**, 1, 21-35.
- 한상미, 김경미(2006).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 **대한간호학회지**, 36(1), 37-44.
- 현명호, 유제민, 이수현(2002). 여중생의 비만, 신체상 불만족 및 폭식 행동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구조 방정식 모델의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3), 565-580.
- Alfieri, T. J., Ruble, D. N., & Higgins, E. T.(1996). Gender stereotypes during adolescence: Developmental changes and the transition to junior high school. *Developmental Psychology*, 32(6), 1129-1137.
- Attie, A., & Brooks-Gunn, J.(1989). Development of eating problems in adolescent girls: A longitudinal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25(1), 70-79.
- Baron, R. M., & Kenny, D. A.(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Cantwell, D. P.(1990). Depression across the early life span. In M. Lewis & S. M. Miller(Eds.), *Handbook of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pp. 293-309). NY: Plenum.
- Cawley, J.(2001). Body weight and the dating and sexual behaviors of young adolescents. In R. T. Michael(Ed.), *Social awakening: Adolescent behavior as adulthood approaches*. NY: Russel Sage Foundation.
- Cohance, G. H., & Pope, H. G.(2001). Body image in boys: A review of the litera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 29, 373-379.
- Compian, L., Gowen, L. K., & Hayward, C.(2004). Peripubertal girls' romantic and platonic involvement with boys: Associations with body image and depression symptom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4(1), 23-47.
- de Zwann, M., Mitchell, J. E., Seim, H. C., Specker, S. M., Pyle, R. L., Raymond, N. C., et al.(1994). Eating related and general psychopathology in obese females with binge rating disorder.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 15, 43-52.
- Dombush, S. M., Carlsmith, J. M., Duncan, P. D., Gross, R. T., Martin, J. A., Ritter, P. L., et al.(1984). Sexual maturation, social class, and the desire to be thin among adolescent females. *Developmental and Behavior Pediatrics*, 5, 308-314.
- Elkind, D.(1981). *Children and adolescents: Interactive essays on Jean Piaget*(3rd ed.). New York: McGraw-hill.
- Faubel, M.(1988). Body image and depression in women with early and late onset obesity. *The Journal of Psychology*, 123, 385-395.
- Field, A. E., Carmargo, C. A., Taylor, C. B., Berkey, C. S., Robert, S. B., & Colditz, G. A.(2001). Peer, parent, and media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weight concerns and frequent dieting among preadolescent and adolescent girls and boys. *Pediatrics*, 107(1), 54-60.
- Galambos, N. L., Almeida, D. M., & Petersen, A. C.(1990). Masculinity, femininity, and sex role attitudes in early adolescence: Exploring gender

- intensification. *Child Development*, 61(6), 1905-1914.
- Hart, B. I., & Thompson, J. M.(1996). Gender role characteristics and depressive symptomatology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6(4), 407-426.
- Harter, S.(1990). Issues in the assessment of the self-concept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A. LaGreca(Ed.), *Through the eyes of a child*(pp. 292-325). Boston: Allyn & Bacon.
- Hill, J. P., & Lynch, M. E.(1983). The intensification of gender-related role expectations during early adolescence. In J. Brooks-Gunn & A. Petersen (Eds.), *Girls at puberty: Biological and psychological perspectives* (pp. 201-208). Hillsdale, NJ: Erlbaum.
- Jaenicke, C., Hammen, C., Zupan, B., Hirote, D., Gordon, D., Adrian, C., et al.(1987). Cognitive vulnerability in children at risk for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5, 559-572.
- Kulik, L.(2005). Predicting gender role stereotypes among adolescents in Israel: The impact of background variables, personality traits, and parental factors. *Journal of Youth Studies*, 8(1), 111-129.
- La-pointe, V., & Marcotte, D.(2000). Gender-typed characteristics and coping strategies of depressed adolescents. *European Review of Applied Psychology*, 50, 451-460.
- Maccoby, E. E.(1998). Cross-sex encounters. In E. E. Maccoby(Ed.), *The two sexes: Growing apart, coming together*. Cambridge, MA: Belknap Press.
- Marcotte, D., Alain, M., & Gosselin, M. J.(1999). Gender differences in adolescent depression: Gender-typed characteristics of problem-solving skill deficits? *Sex Roles*, 41, 31-48.
- McCreary, D. R., & Sasse, D. K.(2000). An exploration of the drive for muscularity in adolescent boys and girls.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48, 297-304.
- Moradi, B., Dirks, D., & Matteson, A.(2005). Roles of sexual objectification experiences and internalization of standards of beauty in eating disorder symptomatology: A test and extension of objectification the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 420-428.
- Nolen-Hoeksema, S., & Girgus, J.(1994). The emergence of gender differences in depression during adolescence. *Psychological Bulletin*, 115, 424-443.
- Petersen, A. C., Sarigiani, P., & Kennedy, R. E.(1991). Adolescent depression: Why more girl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0, 247-271.
- Pierce, J. W., & Wardle, J.(1997). Cause and effects and self-esteem of overweight childre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8, 645-650.
- Polce-Lynch, M., Myers, B. J., Kilmartin, C. T., Forssmann-Falck, R., & Kliewer, W.(1998). Gender and age patterns in emotional expression, body image, and self-esteem: A qualitative analysis. *Sex Roles*, 38, 1025-1048.
- Presnell, K., Bearman, S. K., & Stice, E.(2003). Risk factors body dissatisfaction in adolescent boys and girls: A prospective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36, 389-401.
- Rodin, M., Price, J., Sanchez, F., & McElligot, S.(1989). Derogation, exclusion, and unfair treatment of person with social flaws: Controllability of stigma and attribution of prejudic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5(3), 439-451.
- Rosenberg, M.(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
- Schutz, H. K., & Paxton, S. J.(2007). Friendship quality, body dissatisfaction, dieting and disordered eating in adolescent girls.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6, 67-83.
- Shroff, H., & Thompson, J. K.(2006). Peer influences, body-image dissatisfaction, eating dysfunction and self-esteem in adolescent girls.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1(4), 533-551.
- Stice, E., Hayward, C., Cameron, R., Kilien, J. D., & Talyer, C. B.(2000). Body image and eating related factors predict onset of depression in female adolescent: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9(3), 438-444.
- Tiggemann, M.(1996). "Thinking" versus "feeling" fat: Correlates of two indices of body image dissatisfaction. *Australian Journal of Psychology*, 48(1), 21-25.

Waelde, L. C., Silvern, L., & Hodges, W. F.(1994). Stressful life events: Moderators of the relationships of gender and gender roles to self-reported depression and suicidality among college students. *Sex Roles, 30*, 1-22.

Whitley, B. E., & Gridley, B. E.(1993). Sex roles orientation, self-esteem and depression: A latent variables analysi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9*(4), 363-369.

Wicks-Nelson, R., & Israel, A. C.(2000). *Behavior disorders of childhoo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Wong, J. L., & Whitaker, D. J.(1993). Depressive mood states and their cognitive and personality correlates in college students: They improve over tim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9*(5), 615-621.

접 수 일 : 2009년 6월 17일

심사시작일 : 2009년 7월 3일

게재확정일 : 2009년 8월 7일